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김 광 배

(5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장, KIST)

우 리학회는 1945년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불어닥친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서도 1947 7월 9일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당시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이신 **故 윤일중** 선생을 비롯한 전기계 선배 20여분이 발기하여 국내 전기공학의 학술 및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자 조선전기 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윤일중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을 선출하였다. 그로 부터 50년의 기나긴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국내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발전 하였으며 금년으로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를 펼치기로 하고 1996년에 기념사업 기획 위원회와 학술위원회, 50년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6년도에는 몇 번의 위원장단 회합을 통하여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다만 50년사 편찬위원회는 96년 7월부터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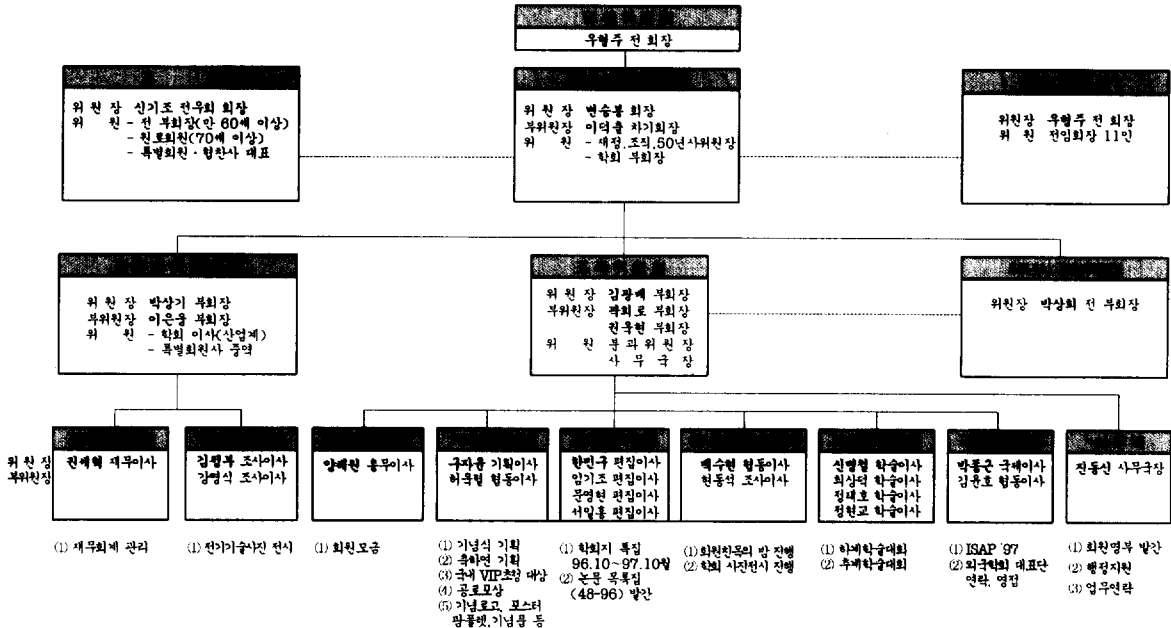
1997년에 변승봉 회장이 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하여 97년 제2차 이사회 에서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조직을 최종 확정하였다.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조직은 다음 표와 같으며, 5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사업

- ◆ 기 념 행 사 : 1.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 : '97. 7. 9(수)/한국과학기술회관
- 2. ISAP '97 국제학술회의 : '97. 7. 6(일)~10(목)/서울대
- 3. '97 하계학술대회 : '97. 7. 21(월)~23(수)/용평리조트
- 4. 사진, 통계 전시회 : '97. 7. 9(수)/한국과학기술회관
- 7. 21(월)~23(수)/용평리조트
- ◆ 기념발간물 : 1. "전기학회 50년사" 발간
- 2. "전기학회 논문(48~97)목록집" 발간
- 3. "전기학회 회원명부" 발간
- ◆ 기념조사사업 : 1. 전기학회 종합 Data base화 및 전산망 연계사업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조직 기구표



지난 2월부터 매월 정례로 50주년 회장단 회의,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분과회의 및 관련위원회 별 회의등 십수차례의 준비회합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기틀을 다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5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후원, 협찬의 범위를 정하고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후원을 요청하였다. 후원금과 관련하여 4월부터 변승봉 회장을 비롯한 50주년 회장단의 노력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산업체에서 1억 2,170만원, 학회임원 찬조 905만원, 회원찬조 430만원, 96년도 자체확보 2,500만원, 기타수의 104만원등 총 1억 6,109만원이 모금되었으며, 각종 기념행사와 사업들을 무난히 치를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상기 기념사업 중에서 기념식과 축하연을 당초에는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생각하였으나 경제불황등 국내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으로 정하고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로서 검소하면서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기념식과 축하연은 1997년 7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외국학회로서 협정을 맺은 일본전기학회(IEEJ) 대표단과 중국전기공정학회(CSEE) 대표단 및 중국전공기술학회(CES) 대표단을 초청하여 3개 외국학회에서 회장단, 임원으로 구성된 16명의 많은 축하 대표단이 참가해 주었다.

국내의 초청대상자로는 관련 학계와 산업계를 이끌어 오신 400여명을 선정하고 초청장을 발송, 각계의 원로 및 중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기기술발달 50년과 학회 50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사진, 도표를 전시한 사진전시회를 7월 9일 기념식장과 7월21일-23일 하계학술대회기간 개최하였고, 서울대 호암콘벤션센터에서 7월 6일 ~ 10일까지 개최된 ISAP '97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세계 20여개국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8편의 논문이 발표됨으로서 우리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였다.

용평리조트에서 7월 21일 ~ 23일까지 열린 '97 하계 학술대회'에는 1300여명의 참가회원과 400여명의 동반가족이 참가하여 국내 학회의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둘째날 개최된 "회원친목의 밤"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여름밤의 화려한 별자리 밑에서 낭도민요를 들으면서 모두 흥겨운 마음으로 전기학회 50주년을 자축하였다.

50주년 기념발간사업에서는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편찬위원들의 자료수집, 정리, 집필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50여 페이지의 귀중한 화보를 비롯한 학회 50년의 지나간 발자취와 기록들을 정리한 600여페이지의 "전기학회 50년사"를 발간하였고 50주년 기념 "전기학회 회원명부"는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 회원들의 소재확인, 자료정리등 1년여의 작업 끝에 12월에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편집분과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호를 내기로 편집계획을 세우고 96년 10월호부터 97년 12월호까지 9회에 걸쳐 "전기 100년, 학회 50년", "50년간의 전기기술 25 대 이벤트", "전기기기", "전력전자"등 각분야의 기술 발달 특집을 준비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1948년 창간호부터 97년까지 학회 50년간에 게재된 "전기학회 논문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 종합 Data base화 및 전산망 연계 방안"을 1년여 기간 작업끝에 완료하여 천리안에 47~97년까지의 논문목록, 학술행사 정보등을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이 PC를 통하여 손쉽게 학회학술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학회가 오늘날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학회로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21세기 과학기술선진을 위한 학회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다.

끝으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에 크게 수고하신 박상기 부회장과 짧은 기간 전기학회 50년사 편찬 발간에 수고하신 박상희 50년사 편찬위원장, 각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분과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5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 협찬해주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특별회원사 및 협찬업체와 찬조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